



# 제59차 한국췌장외과연구회

일시 : 2019년 3월 16일 (토) 12:00 - 18:00

장소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대강당(M1 교육정보동)



한국췌장외과연구회  
Korean Pancreas Surgery Club



**빠르고 편리한  
지혈제**  
Stop bleeding Fast <sup>1</sup>

**유동성 제형 <sup>2,3</sup>**

불규칙한 조직표면 및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  
최소침습 수술에 적용이 편리합니다.

**조직손상 최소화 <sup>4</sup>**

전기 소작술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수술시야 확보 <sup>5</sup>**

지혈 후 가벼운 세척만으로 수술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Narayan S, Tucker MD, Shander A. An economic model to assess Floseal hemostatic matrix versus Gelfoam with bovine thrombin to reduce perioperative blood loss during cardiovascular procedures. Proceedings of the 6th Annual SABM Meeting; 2007 Sept 7-9; Hollywood, Calif. 2. Richter F, Schnorr D, Deger S, et al. Improvement of hemostasis in open and laparoscopically performed partial nephrectomy using a gelatin matrix-thrombin tissue sealant (Floseal). Urology. 2003;61:73-77 3. Gill IS, Ramani AP, Spaliviero M, et al. Improved hemostasis during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using gelatin matrix thrombin sealant. Urology. 2005;65:463-466. 4. Ng C, Chern B, Siow A. Retrospective study of the success rates and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total laparoscopic hysterectomy. Obstetrics Gynaecol. 2007;33(4):51-18 5. Bedi AD, et al. Use of Hemostatic Matrix for Hemostasis of the Carotid Sinus During Endoscopic Endonasal Pituitary and Suprasellar Tumor Surgery. Skull base 2011;21:189-92

# 제59차 한국췌장외과연구회

일시 : 2019년 3월 16일 (토) 12:00 - 18:00

장소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대강당(M1 교육정보동)

# 제59차 한국척장외과연구회



일시: 2019년 3월 16일 (토) 12:00 - 18:00

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대강당(M1 교육정보동)

## Sponser

**B | BRAUN**  
SHARING EXPERTISE

**Baxter**

**OLYMPUS**

**ETHICON**  
part of the Johnson & Johnson family of companies

**Medtronic**  
Further Together

**BORYUNG**

**dalim** (주) 다림바이오텍

**GC녹십자**

**종근당**

**Pharmbio Korea Inc.**

**명문제약(주)**

**IPSEN**  
Innovation for patient care

# 제59차 한국췌장외과연구회

일시: 2019년 3월 16일 (토) 12:00 - 18:00

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대강당(M1 교육정보동)



## Program

12:00-13:00	점심식사 및 등록		
13:00-13:10	개회사	한국췌장외과연구회 회장	최인석
	한국췌장외과연구회 임상 연구 지원 사업	울산의대 나양원, 서울의대	장진영
13:10-13:18	한국의 단일 절개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현황	동아대학교 의료원	노영훈 8
13:18-13:26	원위부 담관암에서 추가절제에 의한 근위부 담관 절제면 상태에 따른 생존률 비교	서울아산병원	황대욱 12
13:26-13:34	진행성 담낭암에서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형 (HER-2)의 예후 예측인자로서의 의의 및 향후 치료와의 연계성	중앙대병원	이승은 14
13:34-13:42	한국 가족성 췌장암의 유병률과 임상양상 분석	서울대병원	김홍범 16
13:42-13: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최소침습췌장절제술과 개복췌장절제술의 비용효과분석	분당서울대병원	이준서 20
13:50-14:10	Discussion		
	Special Lecture	전남의대	조철균
14:10-14:50	임상외과 알아야 할 중개 연구의 기본	연세의대 중앙내과	정희철 26
14:50-15:10	Coffee Break		
	Update on the Treatment of AOV Cancer	성균관의대	최성호, 영남의대 윤성수
15:10-15:30	Pathologic perspective on the 8 <sup>th</sup> edition of AJCC staging system for AOV cancer	성균관의대 병리과	장기택 32
15:30-15:50	Management of biopsy proven AOV adenoma	전남의대 소화기내과	박창환 48

15:50-16:10	Open/laparoscopic transduodenal ampullectomy : indication & surgical procedure	차의대 외과	최성훈 50
16:10-16:30	Optimal surgical extent of pancreatoduodenectomy for AOV cancer	울산의대 외과	이우형 56
16:30-16:50	Current evidence of adjuvant therapy for AOV cancer case	연세의대 외과	박준성 58
	Case Discussion	성균관의대	허진석, 이화의대 이현국
16:50-17:00	Distal CBD cancer with ovary metastasis	서울아산병원	홍사광
17:00-17:10	Uncontrolled pain as a primary symptom of undetected liver metastasis	삼성서울병원	김나루
17:10-17:20	Good and Bad clinical outcomes in Acinar cell carcinoma of pancreas	강남세브란스병원	김형선
17:20-17:30	Splenic artery embolization for gastric variceal bleeding complicated by acute pancreatitis	전남대학교 병원	김희준
17:30-17:40	Pancreatic solitary fibrous tumor	서울아산병원	유대광
17:40-17:50	Q&A		
17:50-17:55	공지사항 및 단체사진 촬영		총무 이희성
17:55-18:00	폐회사	한국췌장외과연구회 회장	최인석
18:00-	저녁식사		

# 제59차 한국척장외과연구회



## 한국척장외과연구회 임상 연구 지원 사업

Moderator

울산의대 나양원, 서울의대 장진영



노영훈

동아대학교 의료원

학력 사항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경력 / 연수

동아대학교병원 수련의  
동아대학교 병원 외과 전공의 수료  
육군 군의관  
동아대학교 외과학교실 간담체외과 임상강사  
Sun Lee microsurgical training course 수료  
2012년 UIC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Robot surgery 장기연수

(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부교수  
외과전문의  
대한간담체외과 세부 전문의  
대한외과학회 학회지 심사위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인사위원  
동아대학교 의료원 장기이식 센터장  
동아대학교 의료원 교육연구부 수련실장  
동아대학교 의료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위원

(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술기위원회 위원장  
대한 내시경복강경학회 국제위원회 위원

# 한국의 단일 절개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현황

노영훈 | 동아대학교 의료원

## 배경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있어 기존의 3,4공식 외에 최근 들어 단일통로 술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후반, 카톨릭 대학교에서 소개한 이후로 2010년 이후부터는 단일절개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단일 절개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장점은 기존의 3,4개의 작은 절개를 필요로 하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비해 배꼽을 통한 하나의 절개를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미용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강경 카메라 및 기구 간의 충돌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으며, 카메라의 각도의 제한이 있고, critical view of safety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술식과 비교하여 단일통로 술식의 수술 결과 및 안전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행해져 왔다. 보고에 따라 두 수술에 있어 미용적 측면에서 단일통로 술식이 우수하며 그 외에 수술 결과는 유사하다는 연구들도 있었으나, 반대로 단일통로 술식의 수술 시간이 더 소요되고 합병증의 빈도도 높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 목적 및 연구 방법

국내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병원 뿐 아니라 2차병원에서도 단일 절개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단일통로 수술에 대한 전국적인 분석이 없으므로 다기관 연구를 통하여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의 연도별, 기관별 시행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일반적인 적응증 및 수술 결과 및 수술 후 합병증의 비율에 대한 기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 활발하게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10군데의 기관을 선정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술 결과(5000례 이상)를 분석하여 기존의 3,4 공식 수술과의 결과를 비교하여 단일통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황대욱

서울아산병원

## EDUCATION

- 1993 - 1995 Premedical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5 - 1999 School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M.D. Degree)  
 2003 - 2008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Master's Degree in Medical Science)  
 2008 - 2016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octorate Degree in Medical Science)  
 2016 - 2018 Mayo Clinic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MN, USA (Master in Biomedical Sciences,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 CAREER

- 2007 - 2009 Clinical Fellow, Division of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09 - 2011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Hepato-Biliary & Pancreas 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2011 - 2014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Hepato-Biliary & Pancreas 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2016 - 2018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urgery, Mayo Clinic, MN, USA

## 원위부 담관암에서 추가절제에 의한 근위부 담관 절제면 상태에 따른 생존률 비교

황대욱 | 서울아산병원

## Background/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survival differences following intra-operative frozen-section examination of bile duct resection margins and final longitudinal margin status (LMS) in distal bile duct cancer (DBD cancer).

## Methods

193 patients underwent Whipple's operation for curative resection of DBD cancer from 2008 to 2016. Patients were sorted into 2 and 3 groups according to LMS of the frozen-sections and the final pathological specimen results: R0 on first bile duct resection (Primary R0), R0 after additional resection (Secondary R0), and no evidence of residual carcinoma (FR0), carcinoma in situ or high-grade dysplasia (FR1-CIS/HGD), or invasive carcinoma (FR1-INV). Survival and prognostic factors according to LMS were analyzed.

##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R0 in 5-year overall survival (OS) or disease-free survival (DFS). The 5-year OS after FR0, FR1-CIS/HGD, FR1-INV were 59.3%, 59.5%, 14.3%, respectively. There was no differences between FR0 and FR1-CIS/HGD ( $P = 0.842$ ). Final margin status of the bile duct was an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 by multivariable analyses.

## Conclusions

If R0 of final longitudinal margin status was achieved, it would help to improve survival regardless of R0 through additional resection. And, it should be avoided remaining invasive cancer at the longitudinal margin whenever possible.



이승은 중양대병원

경력 사항

- 2008 - 201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 2010 - 2014 중양대학교병원 조교수
- 2014 - 중양대학교병원 부교수

## 진행성 담낭암에서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형 (HER-2)의 예후 예측인자로서의 의의 및 향후 치료와의 연계성

이승은 | 중양대병원

담낭암은 담도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이기는 하지만 전체 암종 중에서는 발생률 20 위로 비교적 드문 암으로 알려져 있다. 담낭암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진단 당시 이미 전신 전이 등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담낭암이 매우 드문 암인데다가 담낭암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표적 항암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다 할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담낭암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치료 표적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HER-2/neu 유전자는 인체의 17번 염색체 장완(17q21)에 위치하는 원종양 유전자(proto-oncogene)로서 185KDa 크기의 당단백으로 HER-1, HER-3, HER-4와 함께 세포막 성장인자 수용체 단백질 그룹을 이루며 세포내 신호전달 체계에서 신호의 증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HER2는 여러 암의 발생에 관여함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담낭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소수 발표되었다. 이러한 HER2 과발현과 담낭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HER2 양성인 담낭암 환자의 경우 HER2 단일 클론 항체인 trastuzumab 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이후 비로소 미국에서 HER2 양성 담낭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trastuzumab 치료 2상 임상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수 부족으로 조기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담낭암 호발 국가 주도 하에 HER2 양성 담낭암 환자에서 HER2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담낭암 환자에서 HER2 발현 정도와 이것의 임상적 의의, 예후 예측인자로서의 의미를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담낭암 환자에서 HER2 과발현 정도를 살펴보고 HER2 과발현이 담낭암의 예후 예측 인자로서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HER2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담낭암 치료 임상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 홍 범

서울대병원

## 학 력 사 항

2001 - 2007	중앙대학교 의학부 학사
2014 - 2016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
2017 -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 경 력 사 항

2015 - 2016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전임의
2016 - 2018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외과 임상조교수
2018 - 2018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진료교수
2018 -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임상조교수

## 학 회 활 동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평생회원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평생회원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평생회원  
 대한췌장외과학회 평생회원  
 간담췌외과학회 중앙등록위원회 (KOTUS 관리자)  
 간담췌외과학회 정보위원회  
 간담췌외과학회 연구위원회

## 한국 가족성 췌장암의 유병률과 임상양상 분석

김 홍 범 | 서울대병원

췌장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 가능한 조기 췌장암을 발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췌장암은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가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췌장암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 만성 췌장염뿐만 아니라, 췌장암 가족력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다른 위험 인자들은 생활 습관과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후천적인 요인이라 한다면, 췌장암 가족력은 선천적인 요인으로서 췌장암 조기 검진 대상자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다. 가족력이 있는 췌장암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족성 췌장암에 대한 현황 파악을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다양한 암에서 가족력은 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췌장암 역시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문헌 보고에 따르면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승산비 (오즈비, odds ratio) 는 5.3, 상대위험도 (relative risk) 는 1.5-1.7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족성 췌장암은, 1차 혈족 관계 (first degree relative)의 가족 구성원 중 2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가 있을 경우 정의할 수 있고 전체 췌장암 환자의 4%-1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족성 췌장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The National Familial Pancreas Tumor Registry (NFPTR) 으로 1994년 미국의 Johns Hopkins University 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 NFPTR은 다양한 심포지움과 컨소시움을 통하여 췌장암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고위험군에게 검진 방법을 추천해주어 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췌장암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소시움이 형성된 해외에 비하여 가족성 췌장암의 현황 및 임상양상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하다. 다만 BRCA mutation 의 빈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가족성 췌장암으로 정의할 수 있는 환자는 110명 중 8명 7.2% 였고, 산발성 췌장암과 차이를 보이는 임상적 특징은 없었다.





이준서

분당서울대병원

## 경력사항

2007 - 2011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2014 - 2015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2015 - 2017	인천성모병원 임상강사
2017 - 2019	인천성모병원 임상조교수
2019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최소침습췌장절제술과 개복췌장절제술의 비용효과분석

이준서 | 분당서울대병원

## 서론

Minimally invasive pancreatic resection (MIPR)은 최근 기술적 발전으로 시행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MIPR 적용율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기존의 MIPR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open pancreatic resection (OPR)과 비교한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만을 평가했지만 의료기술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효과성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관련 비용효과의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MIPR에 대한 비용 효과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은 의료환경이 다른 해외연구들이고 대상자 수가 적고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체계에서의 대규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MIPR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국내에서 시행된 원위췌장절제술과 췌십이지장절제술에서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을 포함한 MIPR 과 OPR의 비용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 연구 방법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수진자의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상병내역, 원외처방전 상세내역을 신청하여 MIPR과 OPR을 시행받은 환자의 자료를 추려내고, 이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효과를 분석한다. 비용효과 분석방법은 MIPR과 OPR을 시행 받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Decision Analytical Model을 구축하여 치료 방법 별로 전체 비용을 구하고, 각 방법의 quality adjusted life year (QALY)를 구하여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을 계산한다.

## 예상 결과

총 비용을 고려했을 때 MIPR의 효과는 OPR과 비슷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입원비가 낮은 국내 의료보험시스템에서 재원기간 감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입원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합병증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험에 따른 비용효과의 차이가 있을지는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59차  
한국취장외과연구회

---



## Special Lecture

👁 Moderator 🗨  
전남의대 조철균



정희철

연세의대 종양내과

### 학력 사항

- 199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0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 경력 사항

- 1994 - 1998 세브란스병원 내과수련의  
1999 - 2002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강사  
2002 - 2004 일본 가고시마대학 의과대학 대학원 분자종양학과 박사후연구원  
2004 - 2008 연세암센터 암전이연구센터 조교수  
2008 - 200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교수  
2009 - 201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부교수  
2010 - 2013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xperimental Therapeutics,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  
2015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 학회 활동

-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암학회, 항암요법연구회 (체담도분과, 완화의료분과),  
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 임상의가 알아야 할 중개 연구의 기본

정희철 | 연세의대 종양내과

서양의학의 핵심은 과학적인 사실과 분석방법이다. 당연히 의사의 기본 의무는 환자의 진료와 의학연구임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임상의학의 목적은 환자의 질병 치유를 최종 목적으로 하며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경험과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현대의학으로 갈수록 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은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치료의 재현성과 치료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그 지식이 임상의학에 이용될 때까지의 지연 시간(translational gap)을 크게 만들었으며 제한된 수의 기초의학 전공자가 그 지식이 임상에 적용될 수 있게 맞추어 가져오는 것이 어려운 일을 감안할 때, 기초연구를 이해하고 일부 수행하면서 의사가 아닌 기초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임상의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의를 대규모 연구의 책임자로 하여 거액의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연구수행체계가 자리잡게 되었고 따라서 대학병원 급의 대형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구능력을 갖춘 임상의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OECD 정의에 의하면 기초연구는 가설, 이론 혹은 법칙을 확립하고 검증함을 기대하며 성질, 구조, 관계를 분석한다. 기초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술지에 발표되거나 동일한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에게 배포된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장래의 특정 응용 (particular application in view)”에 대한 계획의 유무이다. 즉, 기초연구는 설사 지향형 기초연구라 하더라도 특정한 부분, 문제, 현상 등에 대한 응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 연구를 일컫는다. 하지만 의사들의 기초의학은 임상의학을 위한 바탕으로 순수 과학과 차이를 갖는 응용 과학으로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중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가 되어야 한다. 기초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임상 적용 가능한 신 치료법의 개발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중개연구 개념이 등장했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중개연구라는 용어는 1990년대 처음 등장한 후 2000년대 들어 그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었으나, 중개연구라는 용어가 엄밀한 정의 없이 탄생한 뒤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함에 따라 미국에서도 그 개념적 혼란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의 흐름을 반영하여 2000년대부터 중개연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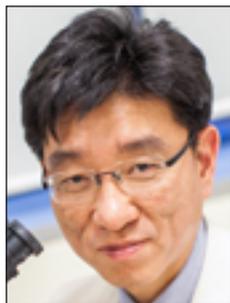




## Update on the Treatment of AOV Cancer

👁 Moderator 📄

성균관대 최성호, 영남대 윤성수



장기택 성균관의대 병리과

학 력 사 항

- 199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 199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석사
- 200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박사

경 력 사 항

- 1996 - 2000 서울대병원 병리과 전공의
- 2000 - 2002 한림대학교병원 전임의
- 2003 - 2007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조교수
- 2007 - 2013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부교수
- 2010 - 2011 교환교수: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병원 병리과 (Emory University Hospital, Atlanta, Georgia, USA)
- 2013 -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교수

학 회 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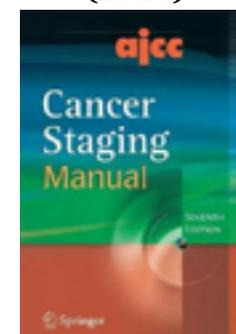
- 대한병리학회 정회원
- Regular member of Pancreatobiliary Pathology Society

# Pathologic perspective on the 8<sup>th</sup> edition of AJCC staging system for AOV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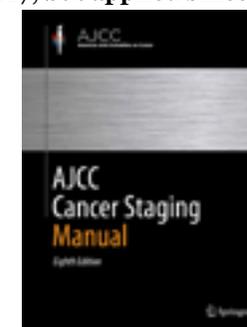
장기택 | 성균관의대 병리과

## AJCC cancer staging

AJCC 7<sup>th</sup> Edition (2010)



AJCC 8<sup>th</sup> Edition (2017, but applied since 2018)



## Summary of Changes of AoV in 8<sup>th</sup> Edition of AJCC

Changes	Details of change	Level of Evidence
Definition of Primary Tumor (T)	T1 tumors have been subdivided into T1a and T1b. T1a : tumor limited to ampulla of Vater or sphincter of Oddi T1b : tumor invades beyond the sphincter of Oddi (perisphincteric invasion) and/or into the duodenal submucosa	III
Definition of Primary Tumor (T)	The T2 definition has been revised to define T2 as invasion into the muscularis propria of the duodenum.	III
Definition of Primary Tumor (T)	T3 tumors have been subdivided into T3a and T3b. T3a: tumor directly invades the pancreas (up to 0.5 cm) T3b: tumor extends more than 0.5 cm into the pancreas or extends into peripancreatic or periduodenal tissue or duodenal serosa, but without involvement of the celiac axis or superior mesenteric artery	III
Definition of Primary Tumor (T)	The T4 definition has been revised to be consistent with the staging system for exocrine pancreas: tumor with vascular involvement of the superior mesenteric artery, celiac axis, and/or common hepatic artery (consistent with pancreas staging).	III
Definition of Regional Lymph Node (N)	N1 is defined as one to three positive regional lymph nodes.	II
Definition of Regional Lymph Node (N)	N2 is defined as metastasis to four or more regional lymph nodes.	II

## Level of evidence

- Established by a “Core team of Statisticians, research Methodologists & Clinicians” in 2013
- Goal: evaluation of evidence quality
- Provided along with any changes to a staging system
- No change with level IV evidence
- In less common cancers, few outcome data may be available

## Level of evidence

- **Level I:** The available evidence includes consistent results from **multiple large, well-designed, and well-conduct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appropriate patient populations**, with appropriate end points and appropriate treatments. Both prospective studies and retrospective population-based registry studies are acceptable; studies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methodology rather than chronology.
- **Level II:** The available evidence is obtained from **at least one large, well-designed, and well-conducted study in appropriate patient populations with appropriate end points and with external validation.**
- **Level III:** The available evidence is **somewhat problematic because of one or more factors, such as the number, size, or quality of individual studies**; inconsistency of results across individual studies; appropriateness of the patient population used in one or more studies; or the appropriateness of outcomes used in one or more studies.
- **Level IV:** The available evidence is insufficient because appropriate studies have not yet been perfor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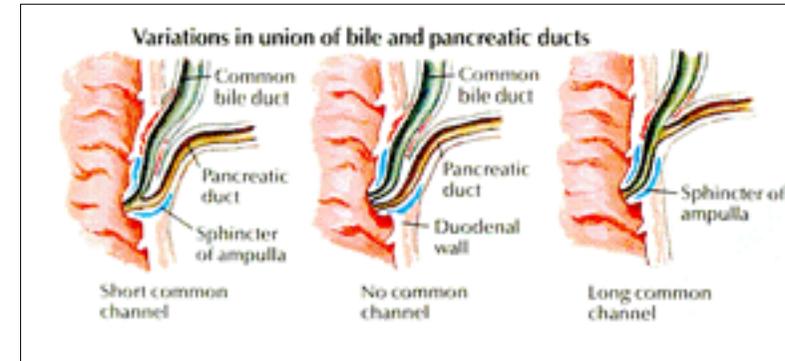
## Summary of Changes of AoV in 8<sup>th</sup> Edition of AJCC

Changes	Details of change	Level of Evidence
<b>Definition of Primary Tumor (T)</b>	T1 tumors have been subdivided into T1a and T1b. T1a : tumor limited to ampulla of Vater or sphincter of Oddi T1b : tumor invades beyond the sphincter of Oddi (perisphincteric invasion) and/or into the duodenal submucosa	<b>III</b>
<b>Definition of Primary Tumor (T)</b>	The T2 definition has been revised to define T2 as invasion into the muscularis propria of the duodenum.	<b>III</b>
<b>Definition of Primary Tumor (T)</b>	T3 tumors have been subdivided into T3a and T3b. T3a: tumor directly invades the pancreas (up to 0.5 cm) T3b: tumor extends more than 0.5 cm into the pancreas or extends into peripancreatic or periduodenal tissue or duodenal serosa, but without involvement of the celiac axis or superior mesenteric artery	<b>III</b>
<b>Definition of Primary Tumor (T)</b>	The T4 definition has been revised to be consistent with the staging system for exocrine pancreas: tumor with vascular involvement of the superior mesenteric artery, celiac axis, and/or common hepatic artery (consistent with pancreas staging).	<b>III</b>
Definition of Regional Lymph Node (N)	N1 is defined as one to three positive regional lymph nodes.	II
Definition of Regional Lymph Node (N)	N2 is defined as metastasis to four or more regional lymph nodes.	II

## AJCC T stage of AJ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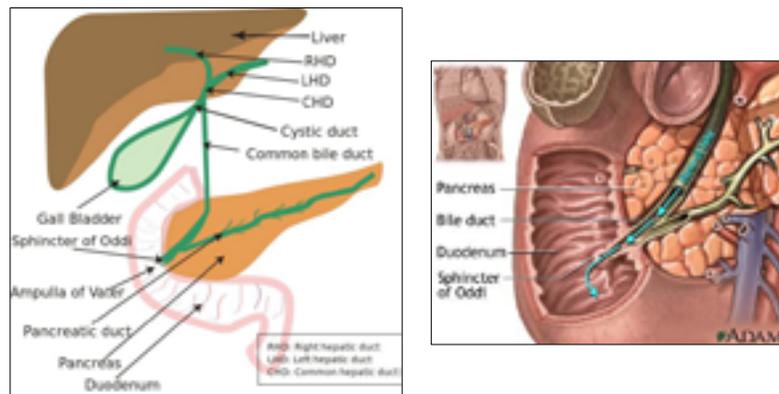
pT	AJCC 7 <sup>th</sup>	AJCC 8 <sup>th</sup>
<b>Tis</b>	Tis: Carcinoma in situ	Tis: Carcinoma in situ
<b>T1</b>	T1: Tumor limited to ampulla of Vater or sphincter of Oddi	T1a: Tumor limited to ampulla of Vater or sphincter of Oddi
		T1b: Tumor invades <b>beyond the sphincter of Oddi</b> (perisphincteric invasion) and/or <b>into the duodenal submucosa</b>
<b>T2</b>	T2: Tumor invades duodenal wall	T2: Tumor invades into the muscularis propria of the duodenum
<b>T3</b>	T3: Tumor invades pancreas	T3a: Tumor directly invades pancreas ( <b>up to 0.5 cm</b> )
		T3b: Tumor extends more than 0.5 cm into the pancreas, or extends <b>into peripancreatic tissue or duodenal serosa</b> without involvement of the celiac axis or superior mesenteric artery
<b>T4</b>	T4: Tumor peripancreatic soft tissue or other adjacent organs or structures	T4: Tumor involves the celiac axis, superior mesenteric artery, and/or common hepatic artery, irrespective of size

## Anatomic variation of Ampulla of V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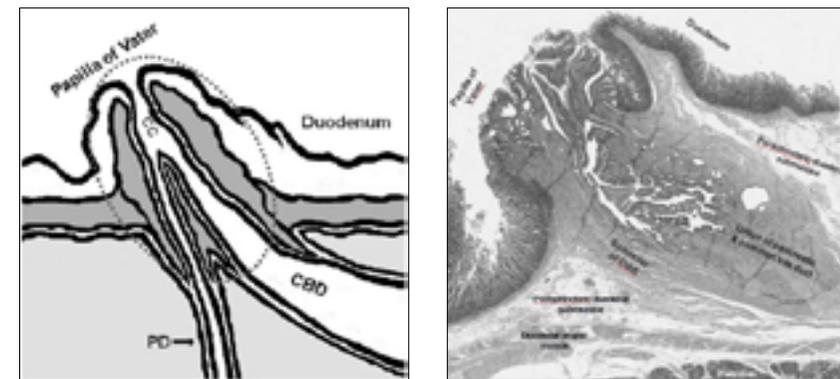


<https://www.med-ed.virginia.edu/courses/rad/gi/pancreas/anat01.html>

## Ampulla of Vater to Clinic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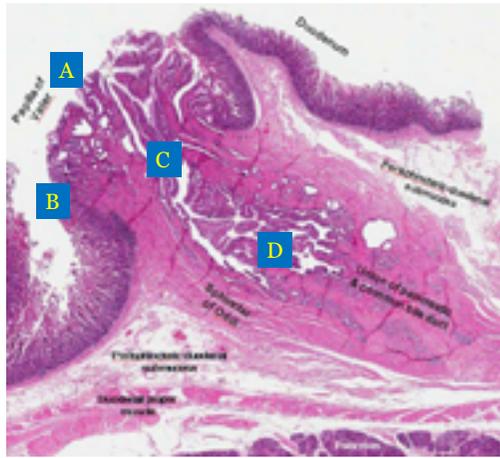


## Ampulla of V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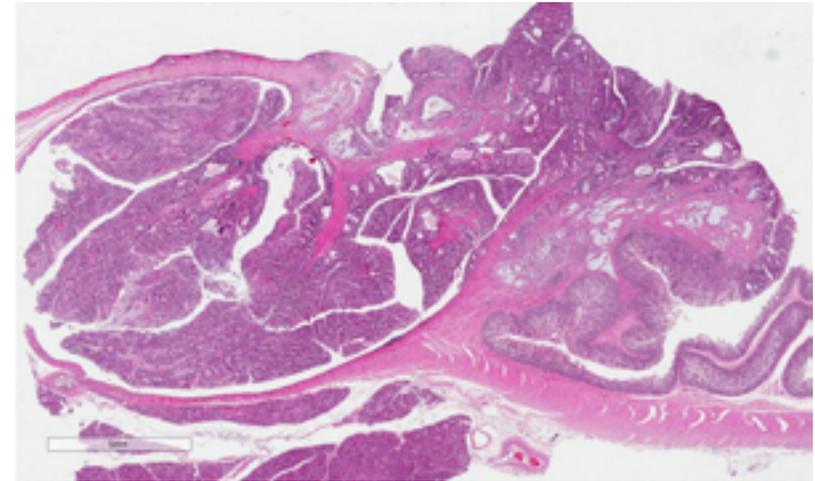
Adsay et al. Am J Surg Pathol 2012;36:1592-1608

## Where is Ampulla of V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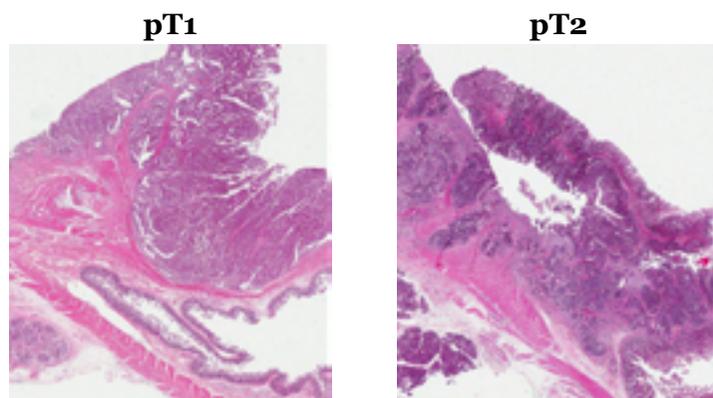


1. A
2. A, B
3. A, B, C
4. A, C, D
5. All of the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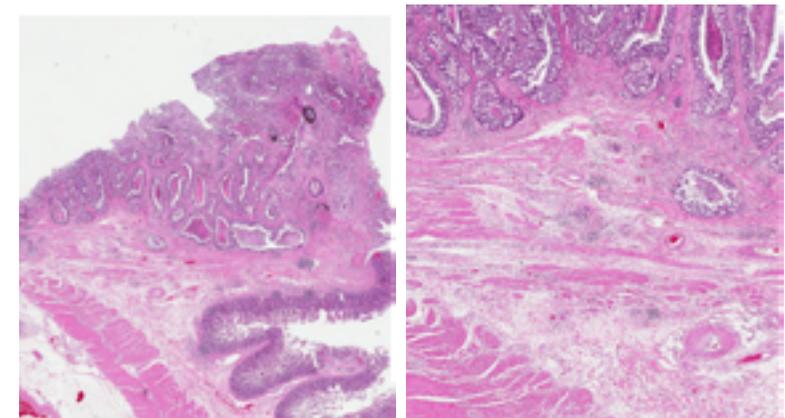
## AoV tumor: T1 vs. T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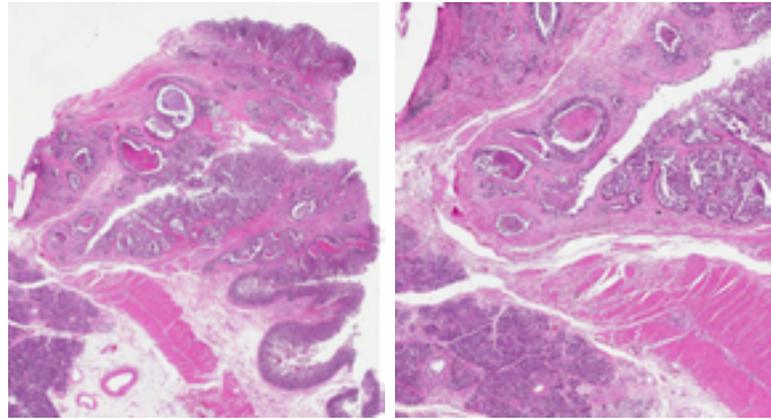
## AoV pathologic T st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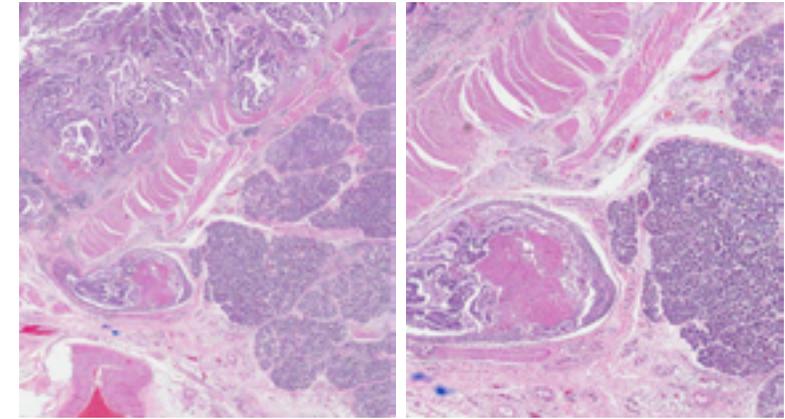
## Is this pT1a or pT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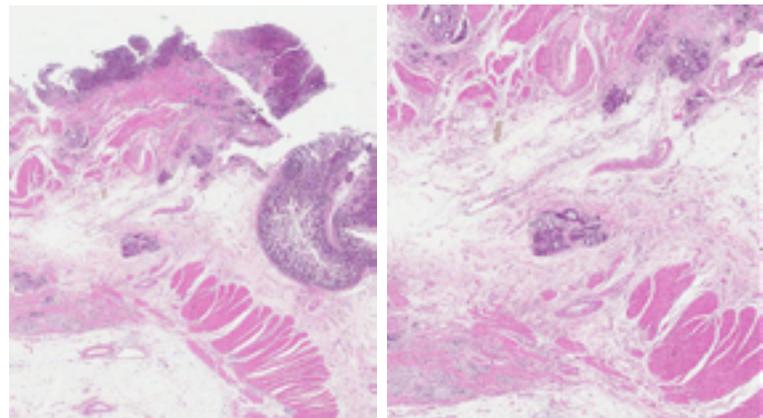
**Is this pT1b or p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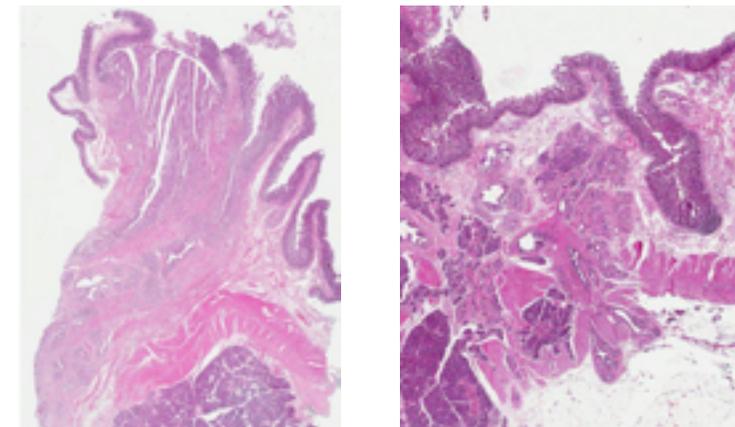
**Is this pancreas invasion or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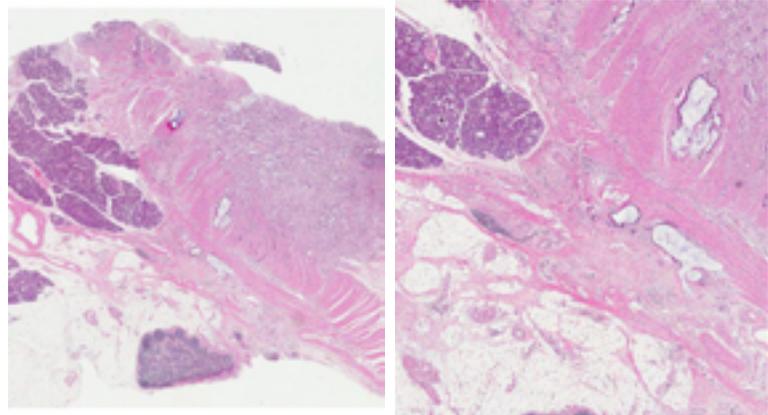
**Is this pT2 or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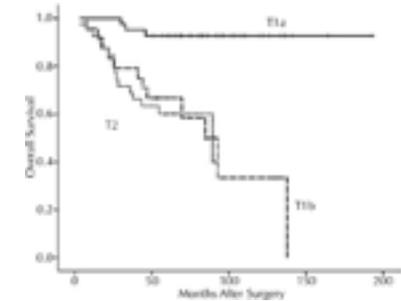
**Anatomic complexity**



## Is this peripancreatic invasion or no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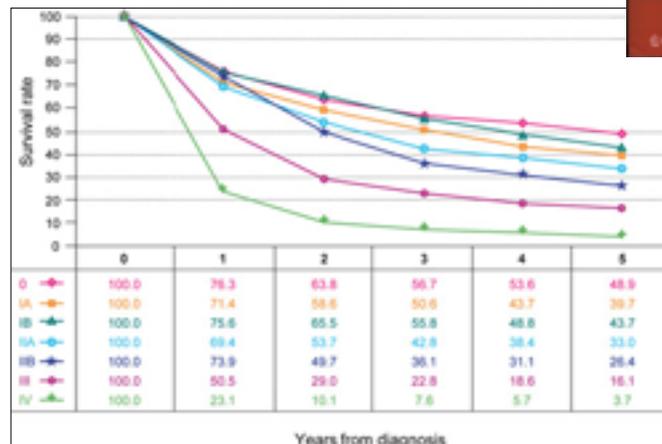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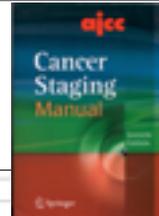


## Sub-classification of Pathologic T1 in AoV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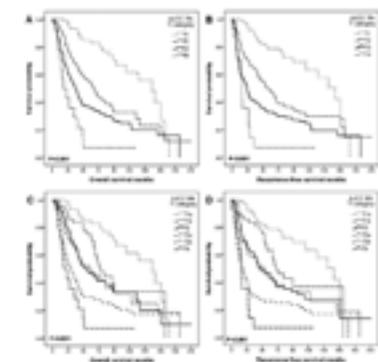
Arch Pathol Lab Med 2014;138:1072-1076

## Problem of AoV T staging in AJCC 7<sup>th</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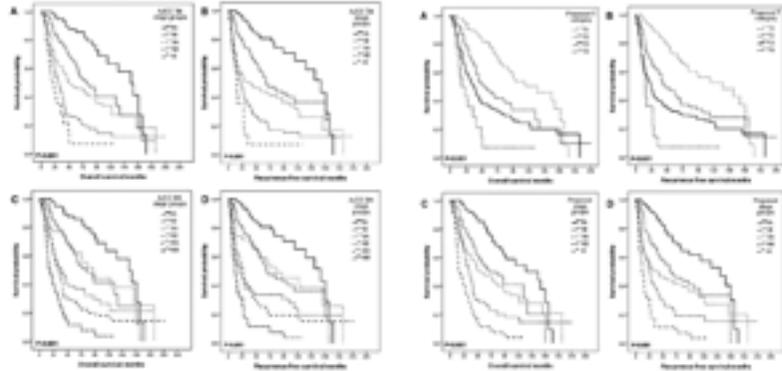
IB  
IA

## Validation of pT staging in AJCC 8<sup>th</sup> Edition (AoV ca)



Surgery 2018;163:1071-1079

## AJCC 7<sup>th</sup> vs. 8<sup>th</sup> vs. proposed pT category



Surgery 2018;163:1071-1079

## Prognostic relevance of AJCC 8<sup>th</sup> TNM staging

- Total 104 consecutive pts who underwent curative resection for ampullary carcinoma
-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urrence-free survival (RFS) were found **between T1a and T1b (p = 0.0030)**, but not between T1b and T2 (p = 0.9319), T2 and T3a (p = 0.0732), or T3a and T3b (p = 0.2118).
- The prognostic impact of the depth of duodenal invasion and pancreatic invasion, which define the T category, were evaluated.
  - With regard to duodenal invas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RFS were found between the negative and submucosa classifications (p = 0.0012) and the muscularis propria and serosa classifications (p = 0.0131), but not between the submucosa and muscularis propria classifications (p = 0.6390).
  - With regard to pancreatic invas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RFS were found between the negative and ≤ 0.5 cm classifications (p = 0.0001), and ≤ 0.5 cm and > 0.5 cm classifications (p = 0.0062).
- An alternative new T category was proposed and this alternative T category can well classify each subgroup with prognostic differences.

Ann Surg Oncol. 2019 Feb 21. doi: 10.1245/s10434-019-07238-6. [Epub ahead of print]

## T staging compa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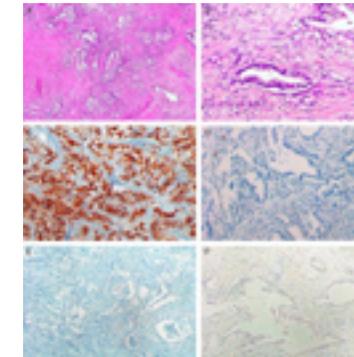
**Table 1**  
Comparison of the seventh and eighth editions of the AJCC cancer staging system and proposed classification for ampulla of Vater cancer.

AJCC seventh T classification	AJCC eighth T classification	Proposed classification
T1 Tumor limited to ampulla of Vater or sphincter of Oddi	T1a Tumor limited to sphincter of Oddi	T1 Tumor limited to sphincter of Oddi or inside to duodenal submucosa
T2 Invasion to duodenal wall	T2 Invasion to duodenal submucosa	T2 Invasion to duodenal proper muscle
T3 Invasion to pancreas	T3a Invasion to pancreas <0.5 cm	T3 Invasion to pancreas or duodenal submucosa
T4 Invasion to peripancreatic soft tissue or other adjacent organs or structures other than pancreas	T3b Invasion to pancreas >0.5 cm or invasion to duodenal submucosa	T4 Involvement of celiac axis or superior mesenteric artery
N0 No lymph node metastasis	N0 No lymph node metastasis	N0 No lymph node metastasis
N1 Lymph node metastasis present	N1 Metastasis in 1-3 lymph nodes	N1 Metastasis in 1-3 lymph nodes
	N2 Metastasis in ≥4 lymph nodes	N2 Metastasis in ≥4 lymph no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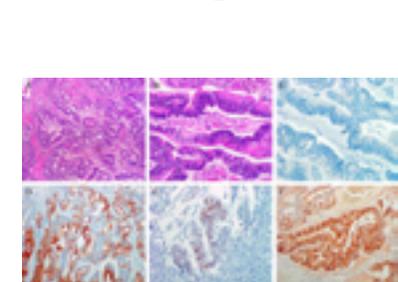
Surgery 2018;163:1071-1079

## AoV cancer by cell phenotype

### Pancreatobiliary type



### Intestinal type



Am J Surg Pathol 2014;38:1371-1379

## Summary

- Ampulla of Vater is difficult organ for AJCC pathologic T classification as anatomic layering is complex.
- More validation is needed as most changes in pathologic T staging in AJCC is level III.
- Unified category of pathologic T staging may be better.
- Nodal metastasis is most strong prognostic indicator.
- Standardized gross protocol and report format is essential for a future study.

## Key References

- Histopathologic Predictors of Survival and Recurrence in Resected Ampullary Adenocarcinoma: International Multicenter Cohort Study. *Ann Surg.* 2019 Jan 7. [Epub ahead of print]
- Validation of the eighth edition of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staging system for ampulla of Vater cancer. *Surgery.* 2018 May;163(5):1071-1079.
- The Prognostic Relevance of the New 8th Edition of the 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 Classification of TNM Staging for Ampulla of Vater Carcinoma. *Ann Surg Oncol.* 2019 Feb 21. [Epub ahead of print]
- Pathologic T1 subclassification of ampullary carcinoma with perisphincteric or duodenal submucosal invasion. Is it T1b? *Arch Pathol Lab Med* 2014;138:1072-1076
- The utility of immunohistochemistry in subtyping adenocarcinoma of the ampullar of Vater. *Am J Surg Pathol* 2014;38:1371-1379
- Pathologic staging of pancreatic, ampullary, biliary, and gallbladder cancers: pitfalls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AJCC/UICC TNM staging system and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Semin Diagn Pathol.* 2012 Aug;29(3):127-41.

Memo

---

---

---

---

---

---

---

---

---

---



박창환 전남의대 소화기내과

#### 학력 사항

1993 M.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2002 Ph.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stgraduate School, Gwangju, Korea

#### 경력 사항

2008 - 2009 Geffen medical school, UCLA, California, USA  
 2015 - 정교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학회 활동

대한체담도학회 - 정책질관리 위원회 연구위원장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 진정 소독위원회 진정 팀장  
 대한중재의료기학회 - 학술 위원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정회원

## Management of biopsy proven AOV adenoma

박창환 | 전남의대 소화기내과

선종은 파터 팽대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질환 중 하나이지만 악성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60%까지 악성 병소를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완전 절제 및 병소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증상을 동반하거나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선종은 내시경 또는 수술을 통한 완전 절제가 꼭 필요하다. 증상이 없고 저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선종은 추적 관찰 할 수 있으나 6~12개월 간격의 내시경 검사 및 조직 확인이 필요하다. 선종의 절제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한 병소의 크기, 침윤정도, 취관 및 담관 확장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 내시경을 통한 절제술의 적응증은 저도 이형성증 이면서 담관 및 취관 내 성장이 1cm 미만인 경우, 고도이형성증인 경우에는 담관 및 취관 내 성장이 없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술을 통한 절제술을 고려한다. 최근 내시경을 통한 선종 절제 후 담관 내에 이형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담관 내 고주파절제술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파터 팽대부 선종은 내시경 절제로 완전 절제가 확인된 후에도 재발에 대한 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최성훈 차의대 외과

#### 학력 사항

1998 - 2005 Dong-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san, Korea  
 2011 -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aster course), Seoul, Korea

#### 경력 사항

2006 - 2010 Resident,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2010 - 2012 Fellowship,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2012 - 2014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2014 - CHA University, Bundang CHA hospital

#### 학회 활동

한국간담체외과학회 정회원, 보험위원, 사료관리위원  
 대한복강경내시경학회 정회원, 학술위원, 국제위원  
 한국췌장외과 연구회 정회원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정회원, 학술위원

## Open/laparoscopic transduodenal ampullectomy : indication & surgical procedure

최성훈 | 차의대 외과

Ampullary neoplasms are well-known premalignant lesions to be extirpated suggesting the adenoma → carcinoma sequence.<sup>(1)</sup> However, sequential changes with this disease makes accurate diagnosis difficult, and the uncertainty of the initial diagnosis makes it difficult to select the proper treatment modality. Although its malignant potential has been suggested, the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se neoplasms have not been fully elucidated. Further, the exact diagnosis of invasive carcinoma and extent of tumor extension are still challenging prior to resection despite diagnostic improvement. Such diagnostic uncertainty has complicated decisions about treatment modality.

Currently, endoscopic papillectomy has largely replaced surgical resection of ampullary tumor as a less invasive procedure with less morbidity.<sup>(2, 3)</sup> However, indications of endoscopic papillectomy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the endoscopists and are still not fully established. Unsuitable lesions for endoscopic treatment or incomplete endoscopic resection require a surgical approach, such as transduodenal ampullectomy (TDA) or pancreaticoduodenectomy (PD).

The morbidity and mortality rate after PD has been dramatically reduced in the recent decade.<sup>(4, 5)</sup> Therefore, PD has been shown to be a treatment option for malignant periampullary lesions.

However, the lesions in the middle zone of the disease spectrum would be indications for TDA. These lesions might be undertreated by the endoscopic approach and over-treated by PD. These lesions include remnant lesions after endoscopic papillectomy, intraductal involvement of the tumor, lesions of high-grade dysplasia,<sup>(6, 7)</sup> and tumors less than 4 cm.<sup>(8, 9)</sup> In addition to the indications mentioned above, patients with a high ASA score who are risky to perform PD are expected to be indications.

In terms of the technical aspects, the key procedures for TDA include 1) localization of ampulla of Vater, 2) proper exposure of the ampulla located within the hollow viscus, 3) gentle traction of the fragile tumor for delicate dissection of the duodenal wall including the sphincter of Oddi, and 4) 360-degree circumferential reconstruction of the fine biliary and pancreatic ducts. Difficulties in exposure and reconstruction were the main reasons for limited use of minimally invasive approaches for TDA. There has been a lack of follow-up series since a case report of laparoscopic TDA,<sup>(10, 11)</sup> which might imply the inherent technical limitation of the conventional laparoscopic surgery.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patient positioning and retraction method can provide excellent exposure of the operative field, which is the first step for the application of the minimally invasive approach for TDA. In addition to this setting, the robot surgical system equipped with three-dimensional vision and “endo-wrist” movement of effector instruments provides competent performance for sophisticated and precise manipulation of ampullary lesions associated with the fine biliary and pancreatic duct system.<sup>(12)</sup>

TDA is a good surgical modality for the proper indications. Although TDA is a much less invasive and simpler procedure for managing ampullary neoplasms compared to pancreaticoduodenectomy,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TDA has rarely been tried. With combinations of appropriate exposure methods and advantages or robot surgical system, minimally invasive TDA also could be performed safely.

## References

1. Cattell RB, Pyrtek LJ. Premalignant lesions of the ampulla of Vater. *Surg Gynecol Obstet.* 1950;90(1):21-30, illust.
2. Ahn DW, Ryu JK, Kim J, Yoon WJ, Lee SH, Kim YT, et al. Endoscopic papillectomy for benign ampullary neoplasms: how can treatment outcome be predicted? *Gut Liver.* 2013;7(2):239-45.
3. Napoleon B, Gincul R, Ponchon T, Berthiller J, Escourrou J, Canard JM, et al. Endoscopic papillectomy for early ampullary tumors: long-term results from a large multicenter prospective study. *Endoscopy.* 2014;46(2):127-34.
4. Brooks AD, Marcus SG, Gradek C, Newman E, Shamamian P, Gouge TH, et al. Decreasing length of stay after pancreaticoduodenectomy. *Arch Surg.* 2000;135(7):823-30.
5. Cameron JL, Pitt HA, Yeo CJ, Lillemoe KD, Kaufman HS, Coleman J. One hundred and forty-five consecutive pancreaticoduodenectomies without mortality. *Ann Surg.* 1993;217(5):430-5; discussion 5-8.
6. Kim JH, Kim JH, Han JH, Yoo BM, Kim MW, Kim WH. Is endoscopic papillectomy safe for ampullary adenomas with high-grade dysplasia? *Ann Surg Oncol.* 2009;16(9):2547-54.
7. Kim JH, Kim JH, Hwang JC, Yoo BM, Moon JH, Lee DK, et al. Management after endoscopic snare papillectomy for ampullary adenomas. *Hepatogastroenterology.* 2013;60(126):1268-73.





이우형

울산의대 외과

## 학력 사항

1999 - 2005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2015 -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석사
2016 -	경상대학교 박사

## 경력 사항

2009 - 2013	서울대학교병원 레지던트
2013 - 2015	분당서울대병원 전임의
2015 - 2018	경상대병원 임상조교수
2018 -	서울아산병원 촉탁임상조교수

## Optimal surgical extent of pancreatoduodenectomy for AOV cancer

이우형 | 울산의대 외과

췌장암 종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외과적인 치료는 크게 췌장부절제술과 췌십이지장절제술이 있다. Ampullary adenoma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할 시 large tumor, high grade dysplasia, intraductal extension(>5mm) 이 동반할 경우 불완전한 절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십이지장을 통한 췌장부 절제술 혹은 췌십이지장절제술이 필요하며, Adenocarcinoma에서는 T1 lesion이다 하더라도, 9-28%의 환자에서 림프절전이(lymph node metastasis)가 있으며, 근치적인 췌십이지장절제술이 추천된다.

Adenocarcinoma에서 추천되는 췌십이지장절제술의 절제범위에 대해서는 종양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 림프절의 전이경향을 살펴보면, 간십이지장인대(#12)나 간동맥(#8) 주위의 림프절 전이가 적인 반면에 췌장두부의 앞뒤 림프절(#13, #17)을 통해서 상장간막동맥(#14)를 통해 대동맥 주위 림프절(#16)으로 림프절전이가 되는 패턴이 발표된 바 있어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할 때에는 위의 림프절을 되도록 포함한 수술이 추천된다. 하지만, 췌장부주위암에서 (#14, 16)을 포함한 확대림프절을 포함한 췌십이지장절제술과 기존의 림프절 광청술을 포함한 술식을 비교한 이전 문헌에서는 생존율 등의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췌장부암만 따로 분석한 문헌은 없어서, 림프절 광청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외과의사들이 유문 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문 보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췌장부 주위암에서 유문보존과 그렇지 않은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전향적 무작위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는 delayed gastric emptying은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그룹에서 발생율이 높으나, 장기 생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담도암, 췌장암 등의 다른 암종이 포함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절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ampullary adenoma에서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Adenocarcinoma가 확인된 췌장부암에서는 근치적인 췌십이지장절제술이 추천된다. 절제범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위의 림프절 광청술을 포함한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이 필요하며, 수술 전 영상에서 진행된 암이나 대동맥 주위 혹은 상장간막 동맥 주위의 림프절 비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림프절 광청술을 포함하여 종양 침범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박준성 연세의대 외과

EDUCATION

- 1991 - 1997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D)
- 1997 - 1998 Internship,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 1999 - 2002 Residency,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 2001 - 2006 Yonsei University (Master)
- 2002 Korean National Board of Surgery
- 2007 - 2011 Yonsei University (Ph.D)

CAREER

- 2005 - 2006 Clinical Fellow, Hepatobiliary Pancreas surgery, Gangnam Severance Hospital
- 2007 - 2011 Assistant Professor of Surgery,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 2012 - 2014 Visiting Professor, Pancreas Cancer Research, Department of Surgery University of Minnesota, MN, USA
- 2012 - 2016 Associate Professor of Surgery,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 2017 - Professor of Surgery,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 Current evidence of adjuvant therapy for AOV cancer case

박준성 | 연세의대 외과

## Ampulla of Vater Carcinoma

- **Incidence**
  - 0.2% gastrointestinal malignancy, 6-20% of periampullary tumors
- **AOV carcinoma**
  - High rates of resectability & Good prognosis
- **Poor Prognostic factor for AOV carcinoma**
  - Lymph node invasion
  - Vascular , nervous and pancreatic invasion
  - Positive margin status after resection
  - Pancreatobiliary type (vs intestinal type )

근지적 절제술 후 Vater씨 정대부암의 예후 인자 및 생존율 분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및 <sup>1</sup>방사선과, <sup>2</sup>M.D. Anderson Cancer Center, <sup>3</sup>국군수도병원 외과  
홍영기 · 정 준<sup>1</sup> · 박준성<sup>2</sup> · 정관주 · 이홍상 · 박영년<sup>3</sup> · 윤동섭 · 최진섭 · 이우철 · 지훈상 · 김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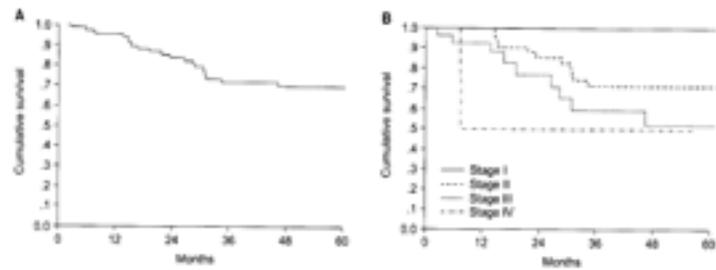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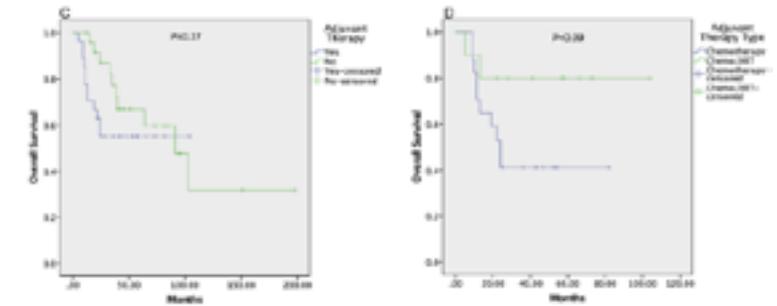


Fig. 1. (A) Cumulative survival rates in 102 patients with ampullary Vater carcinoma. (B) Cumulative survival rates in each TNM stage (B).

Management and outcomes following pancreaticoduodenectomy for ampullary adenocarcinoma

M.T. Chavez<sup>1</sup>, J.P. Sharpe<sup>2</sup>, T. O'Brien<sup>3</sup>, K.T. Patton<sup>4</sup>, D.C. Portnoy<sup>5</sup>, N.A. VanderWalde<sup>6</sup>, J.L. Deneve<sup>7</sup>, D. Shibata<sup>8</sup>, S.W. Behrman<sup>9</sup>, P.V. Dickson<sup>10</sup>

N = 60, 1998-2015, Curative surgery for AOV carcinoma



Adjuvant treatment **did not improve survival**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017

Factors Influencing Recurrence After Curative Resection for Ampulla of Vater carcinoma

JOON MONG PARK, MD, DONG SLP YOON, MD, HUI KYUNG SH KIM, MD,  
BIN SUB CHOI, MD, WOO JUNG LEE, MD, HOON SANG CHIL, MD, AND BYONG BO KIM, MD  
Department of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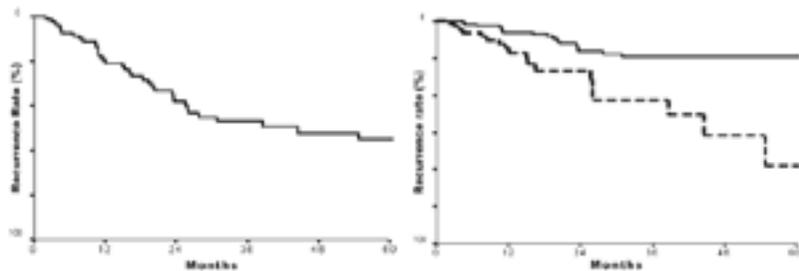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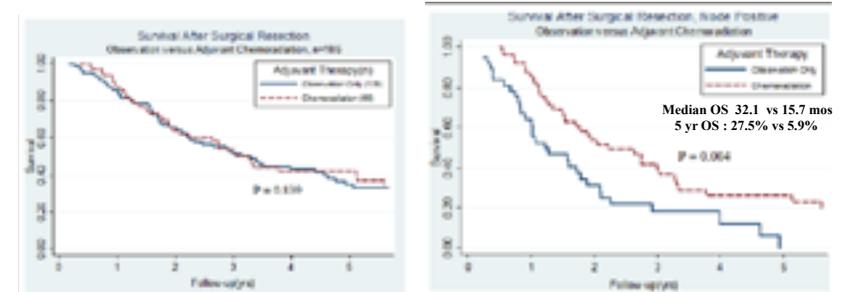
Fig. 2. Cumulative recurrence rates for 87 patients in curative resection for ampulla of Vater carcinoma.

Fig. 3. Recurrence rates according to lymph node metastasis. ---: Lymph node positive (N = 15); —: Lymph node negative (N = 18).

Evaluation of adjuvant chemoradiation therapy for ampullary adenocarcinoma: the Johns Hopkins Hospital - Mayo Clinic collaborative study

Amol K Narang<sup>1</sup>, Robert C Miller<sup>2</sup>, Charles C Hsu<sup>3</sup>, Sumita Bhatia<sup>4</sup>, Timothy M Pawlik<sup>5</sup>, Dan Laheru<sup>6</sup>, Ralph H Hruban<sup>7</sup>, Jessica Zhou<sup>8</sup>, Jordan M Winter<sup>9</sup>, Michael G Haddock<sup>10</sup>, John H Donohue<sup>11</sup>, Richard D Schulick<sup>12</sup>, Christopher L Wolfgang<sup>13</sup>, John L Cameron<sup>14</sup> and Joseph M Herman<sup>15</sup>

N = 290, 1992-2007, Curative surgery for AOV carcinoma  
[ No Adjuvant Tx 120 (64.5%) vs Chemoradiation 66 (35.5%) ]



No significant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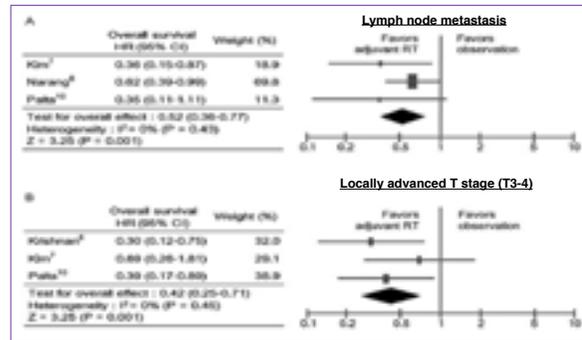
In Node positive patients, **p = 0.004**

Narang et al. Radiation Oncology 2011

## Survival Benefit of Adjuvant Chemoradiotherapy in Patients With Ampulla of Vater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eanmy Kwon, MD, Byoung Hyun Kim, MD, Kyubo Kim, MD, PhD, Eun Kyu Chio, MD, PhD, and Sung W. Ha, MD, PhD

N = 3361, to 2014, Meta analysis, Curative surgery for AOV carcinoma



Patients with lymph node metastasis (HR = 0.52; P = 0.001) and locally advanced T stage disease (HR = 0.42; P = 0.001) may also have survival benefit from adjuvant RT.

Ann Surg 2015

## Postoperative adjuvant treatment for AoV cancer

- Absence of any guidelines from both NCCN and ESMO concerning the treatment of AOV carcinoma
- Only a few retrospectiv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ost-adjuvant treatment in ampullary cancer
- Chemotherapy vs Chemoradiotherapy

## Where does chemotherapy stands in the treatment of ampullary carcinoma? A review of literature

Marwan Ghosn, Hampig Raphael Kourie, Elie El Kassy, Fady Ghassan Haddad, Colette Hanna, Fadi El Kerk, Dolly Na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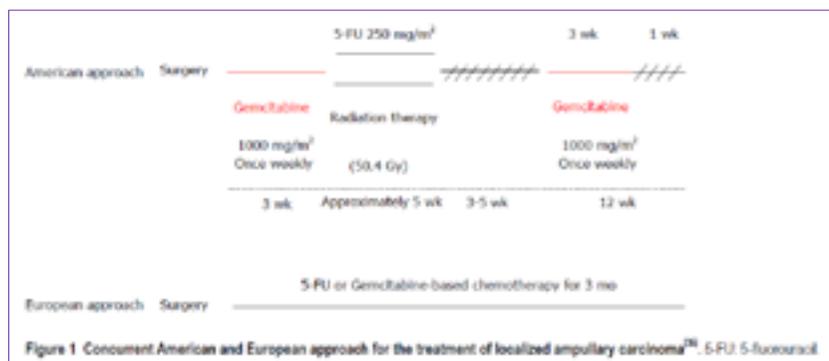


Figure 1 Concurrent American and European approach for the treatment of localized ampullary carcinoma<sup>SM</sup>. 5-FU: 5-fluorouracil

World J Gastrointest Oncol 2016 October 15

---

## 제59차 한국척장외과연구회

---

발행일 | 2019년 03월 15일

발행인 | 최인석

편집인 | 윤유석, 박준성

발행처 | 한국척장외과연구회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현대벤처빌 528호  
TEL : 02-459-8264  
FAX : 02-459-8256  
E-mail : KPSC2004@gmail.com

# HARMONIC<sup>®</sup> HD 1000i Behind the "WOW"



### Unmatched precision

with a unique jaw shape that reduces the need to use a separate dedicated dissecting instrument

### Unparalleled strength

with a blade design that delivers more secure seals, even in the most challenging conditions

### Optimal efficiency

from increased sealing speed, multi-functionality, and simplified steps for use

\*Design Validation Study with surgeons (n=33) operating in simulated procedures in an animate porcine laboratory model. #05950160425  
†In a design validation study with surgeons (n=33) operating in simulated procedures in an animate porcine laboratory model (26/33). #053344160516  
‡In a pre-clinical study, for both iliac dissection and lymph node dissection, the HD 1000i was significantly superior to the predicate devices in dissecting capability (p<0.001 in all cases). #05950160425  
§In a pre-clinical study, 100% (56/56) of porcine blood vessels remained hemostatic over a 30-day survival period. #049339160315  
¶In a benchtop study with 57 mm porcine carotid arteries that compared median burst pressure, HARMONIC<sup>®</sup> HD 1000i (878 mmHg) vs. competitor product A (1224 mmHg) (p<0.0001). #049305160315  
‡‡In a benchtop study with 57 mm porcine carotid arteries that compared median burst pressure, HARMONIC<sup>®</sup> HD 1000i (878 mmHg) vs. competitor product B (1171 mmHg) (p<0.0001). #049315160315  
§§In a porcine study comparing sealing times of HARMONIC<sup>®</sup> ACE<sup>™</sup>\*7 and HARMONIC<sup>®</sup> HD 1000i, HARMONIC<sup>®</sup> HD 1000i shears transected vessels faster than HARMONIC<sup>®</sup> ACE<sup>™</sup>\*7 (mean vessel transection time of 9.186 vs 15.291). #051733160401  
¶¶In a design validation study with surgeons (n=33) operating in simulated procedures in an animate porcine laboratory model (26/33). #053344160515  
‡‡‡Design Validation Study with surgeons (n=33) operating in simulated procedures in an animate porcine laboratory model (33/33). #053346160516  
§§§Seal reliability at 240 mmHg of 98.2% vs. 98.4% for HARMONIC<sup>®</sup> ACE<sup>™</sup>\*7 MIN button. Speed based on average time to transect 150 mm of porcine jejunum (p=0.0000). #050508160401  
¶¶¶Device measurements based on a metrology study (median cut length of 18.87 mm vs. 14.56 mm). #050283160329  
‡‡‡‡Based on average device tip grasping force (distal 5 mm of the jaw). #050295160329  
COPY#8006EN



## 3D Imaging Solution from OLYMPUS

Introducing a new 3D imaging solution that provides depth perception and an excellent spatial view of anatomy that cannot be achieved with traditional 2D systems, The OLYMPUS 3D solution is a fusion of advanced 3D technology, providing a new perspective on surgical imaging without loss of horizon.

# Aesculap® Challenger® Ti-P

Global Innovation in Clip Technology



product  
design award



- Elaborate Jaw Design
- Strong Ligation Power

- Endoscopic Clip

Only One 4mm Automatic Endoscopic Clip  
8mm General Automatic Endoscopic Clip

- Open Clip

Only One Gun Type  
SM 4mm & ML 8mm

